

KOTI SPECIAL TOPIC

05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노인복지정책

최봉근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 곳곳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비하고자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협업과 소통, 교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살펴본다.

노인 1천만 시대와 초고령사회 진입

2024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2월 기준 통계로 65세 이상 인구는 981만 명이며, 202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고령사회(노인 비중 14%)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영국 50년, 독일 36년, 일본이 10년 소요된 것에 비해 우리는 7년에 불과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대수명은 83.6세로서 점차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현재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 중 누군가는 142세까지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타임』지 표지에 실린 바도 있다. 1990년대에는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환갑잔치는 이제 옛날 풍경이 되어버렸고, 여성 인구의 최빈사망연령은 2000년 84.7세였는데, 2022년 기준으로 89.9세까지 높아졌다. 또한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보다 노인 단독 가구 또는 부부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 도움이 필요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경제적 부담 부담의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앞둔 현시점에서는 식사, 주거, 운동, 여가, 의료, 요양, 돌봄, 간병 등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건강하신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적 서비스를 확충해 의료·요양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2024년 2월 기준 통계로 65세 이상 인구는 981만 명이며, 202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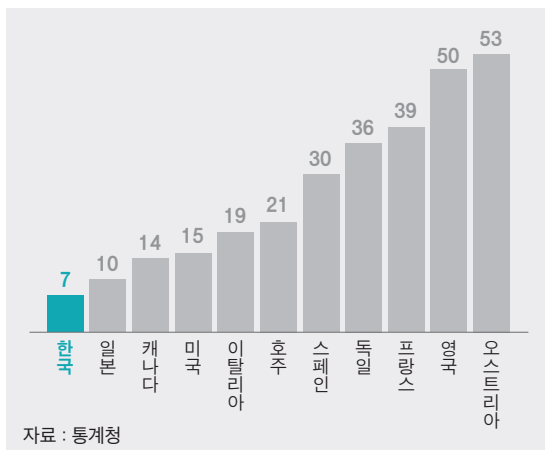


그림1 주요 국가별 고령사회→초고령사회 도달 기간



그림2 “어쩌면 이 아이는 142세까지 살 수 있다”

할 것이며, 아프신 노인에게는 의료·요양·간병 등의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계·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한 요구에도 부응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통합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경로우대 등 노인복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

대통령 주재로 지난 3월 21일 열린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이러한 고령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준비가 필요한 대책들이 논의되는 자리였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복지관 및 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 전문가 등 70여 명이 자리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주택, 가사, 여가, 돌봄,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었다.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우선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세탁, 돌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하고, 관련 진입 장벽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한다.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고령자 복지주택)도 현재 연간 1천 호 신축되는 공급량을 늘려 연간 3천 호까지 확대한다. 또한 노인을 위한 시설, 서비



자료 : 보건복지부

그림3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사진



자료 : KB평창카운티

그림4 노인복지주택



자료 : 청양군청

그림5 고령자 복지주택

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신설하고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 ‘헬스케어리츠’ 방식으로 개발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노인에게 필요한 식사, 체육·운동, 여가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어르신에게 충분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 식사의 단계적 확대, 몸이 불편한 어르신 대상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맞춤형

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한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전국 1,676개 미등록 경로당과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조사와 지원도 추진한다.

아프신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요양·간병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 수준에서 전국 250개소로 확대하고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인하(30%→15%)한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가 젊어지는 간병 부담의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

“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앞둔 현시점에서는 식사, 주거, 운동, 여가, 의료, 영양, 돌봄, 간병 등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



자료 : 제천시청

그림6 경로당



자료 : 부천시청

그림8 재택의료 서비스(부천시청)



자료 : 연천군청

그림7 파크골프장



자료 : 보건복지부

그림9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업을 시행하고, 7월에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도 도입한다. 그리고 다양한 의료·영양·돌봄 서비스가 어르신 수요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교통 취약 계층인 어르신을 위한 교통 및 보행 안전 과제도 함께 발표되었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고, 고령자 비율이 높은 읍·면 지역 마을 통과 도로의 보도 및 교통안

“교통 취약 계층인 어르신을 위한 교통 및 보행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정비와 함께 고령자 비율이 높은 읍·면 지역 마을 통과 도로의 보도 및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조성도 필요해 보인다.”



자료 : 서울시청

그림10 노인보호구역

전시설을 개선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조성도 지원한다. 또한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하고,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교통안전교육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에 놓일 우려가 높은 고령층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확대되길 기원한다.

맺으며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 곳곳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비하고자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협업과 소통, 교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 종합 전문지인 월간『교통』에서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하며, 고령화 대비를 위한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정책 제언과 국내·외 사례를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림11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